

공트초대



아내의 편에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사내들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이승에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로 (그렇다 절대로) 지금의 아내와는 결혼하지 않으리라. 그건 여러측면에서 상당히 가능한 일이다. 첫째, 삼신할미가 나와 무슨 칠천지 원수를 지지만 않았다면 지금의 여자와 다시 인연을 맺어주겠는가. 둘째, 다시 이승으로 태어나는 연대나 시기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결혼적령기가 똑같이 접지할 수가 있겠는가. 자연의 순리가 챗바퀴 돌아가듯 한다면 이 삼라만상의 인연이 다시 또 한번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거란 결코 쉽지않은 일이었다. 셋째, 첫번째의 삼신할미가 내 의중과 소망을 깡그리 깔아뭍기고 나를 다시 지금의 아내와 맺어주기로 작정하고 나서고, 또한 이 삼라만상의 다시 태어나는 순서가 몇십억만분의 일이 또한 제때에 들어맞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아내와 다시 딱딱뜨리는 것과 동시에 돌아선다면 그뻘이 아닌가.

아니 그뻘 지금의 아내이되 걸모양이 지금과는 판판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의 아내이되 면판은 지금의 것으로 그대로 카피가 된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그런 생각 하나마나가 아닌가. 하긴 그렇지. 내가 다시 태어난다해도 꼭 지금과 같이 쪼다의 얼굴을 하고 태어나진 않겠지. 좀더 우아하고, 품위있고, 고상한 얼굴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욱 사나운 쪼다로 태어날 수도 있지. 그렇다면 이 모두가 부질 없는 생각이지. 그렇다면 문제는 바로 지금이다. 뭐가 지긋지긋한지는모

개꿈



金 周 榮 <소설가>

저서 : 단편 / 겨울새

즐거운 우리집

장편 / 아들의 겨울

갯주

목마위의 여자

천둥소리

활반도 (중앙일보)

보여 연재중



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긋지긋하고 괴상망칙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자.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쪼다같은 나와 동고동락해야하는 아내의 편에서도 심기가 편한 일이고, 이런 쪼다를 아버지라고 우러러보면서 살아가는 소생들 역시 지금처럼 슬프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이놈의 이혼이란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수속이 꽤 복잡하다는 것 아닌가. 구청에 가고 가정법원에 가서 서류 신청해서 오라는 날짜에 가고 그 날짜에 가도 다시오라 고쳐오라 하지말라 그러면 못쓴다는 식으로 잔소리가 많다는 소문이 있던데, 게다가 나같은 촌놈은 여기 구청이나 동사무소도 아니고 고향까지 내려가서 협의이혼인가 타협의혼인가, 도장 찍고 서류내어야 하지 않는단다. 그런 것 좀 간단하게 할 수 없나. 쟁쟁 남이 살기 싫어서 헤어져야 하겠는데 웬놈의 수속은 그렇게 복잡하고 잔소리가 많고 막도장 찍을 곳은 또한 왜 그리 많은고. 마음 변하기 전에 아무데다 막도장 팍 찍고 획 돌아서 버리게 뭐가 조처해주면 안되나. 그러나 획 돌아설



수는 없지. 애들 팔 잡고 끌고 돌아서야지. 애들은 내건데, 애들은 내꺼? 그거 어불성설이지. 어째서 애들이 모두 내건가. 두사람이 합작해서 내지른 소생이니까, 돌이켜지. 그렇다면 애들도 나눠야지. 이제 다 커서 키가 멀썩한 사내녀석은 다루기 손쉬울터이니까 내꺼구, 아직 똥오줌을 채 못가리고 뻑뻑 울고 있는 계집애는 여편네꺼지. 하긴 뻑뻑거리는 계집애까지 내꺼라고 내게 짐지우기로 한다면 인간도 아니지. 개돼지보다 못한거 아냐. 그걸 내가 어디가서 동냥짓으로 기르란거야. 그리고 내가 혹시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다 키워놓은 머슴애는 모를까, 뻑뻑 울고 있는 계집애를 보고 어느 실성한 여자가 결혼을 덜컥 승락할까.

애새끼들은 그런 식으로 가르면 되겠지만 집은 어떡하지. 길가에 있는 가게채는 내가 가지고, 수챗물이 역류해 들어오는 방두개짜리 안채는 여편네 쪽에서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 앙큼한 것이 내 말대로만 순순히 따라줄까. 썩속에는 얼마나 빠르다구. 그렇다면 이전 대단한 중대사가 아닌가. 이전 대판 싸움이 아니면 해결이 나기 딱 어려운 노릇인데, 누구 인삼뿌리 먹고 누구 배추뿌리 먹으려 할까. 가게채는 수입이 쏠쏠하던 말야. 담배가게가 곁들어 있는 식품점인데, 지금 세들어 있는 사람을 내쫓고 내가 차지하고 앉으면 한달에 순수입 70만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말야. 저 앙큼한 것이 그걸 눈치 못채고 있을 리가 없지. 그런데 이혼하고 난 뒤에 난 가게채 지키고 살고 여편네는 안채지키고 산다면 이전 또 뭐가. 검둥이 세수하나마나 그게 그거라더니 그 짝이 아닌가. 어렵사리 이혼해서 한 지붕아래서 같이 살게 된다면 그 꼴이 뭐가. 게다가 저 앙큼한 것이 나보다 먼저 히어떨건 놈과 재혼해서 일요일마다 과천 대공원이다, 용인 자연농원이다, 민속촌이다 하며 싸질러 다니는 꼴을 내가 봐야한다는 것인가. 안되지. 그건 정말 눈꼴이 시려서 어떻게 바라본다는 것인가.

할수 없지. 팔아야지. 그래서 돈으로 나눠야지. 그것이 나로 봐서도 깨끗한 태도가 아닌가. 헤어지는 마당에 사내편에서 구질구질한 꼴을 보여서야 쓰겠는가. 체통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그건 그렇구 저 텔레비전이니 냉장고니 기명들이며 가구들은 어떡하나. 그까짓것 그냥 몽땅 쥐버리는 게, 옳은 일 아닌가. 안되지. 자꾸 양보하고나면 그럼 난 뭐란말야.

그런데 생각하다보니 난 뭐가 이렇게도 어려워. 이

혼이란게 이렇게 어려워야 되겠다. 배우니 텔런트니 하는 것들은 먹던 밥숫갈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쉽게 하던데 난 뭐가 이렇게 어려워. 내가 눈이 없나, 코가 없나, 다리가 없는가. 그들보다 단 한가지도 다를게 없는데 난 뭐가 이렇게 어려워. 실컷 애놓고 같이 살던 여자를 매몰차게 소박놓고 미국가서 가갯집 열아홉살난 통통한 딸하고 금방 결혼해도 말썽이 없고 더군다나 미국가서 결혼하고 첫날밤 지내고 작파하고 돌아와서 내몸에 상처는 없다하고 퍽 쳐들고 외쳐대는 세상에, 그들은 그렇게도 앉아서 떡먹기로 손쉬운데 나는 좀 움직여 보려면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래. 젠장 팔자란 길들이기 닷이라는데 쉽게 생각하자구. 텔레비전, 냉장고, 쌀통, 전기난로, 밥통 모두 합쳐봐야 그게 몇푼이나 된다고 사내 대장부가 웅졸하게 그런 것에 연연하고 있어 그래. 그런데 자개농은 백만원짜리가 아닌가. 허긴 이 백만원짜리 자개농 들여올 때 시골벽쩍했지. 이웃에 있는 여편네들이 여우새끼들처럼 우루루 몰려와서 그 때물은 손으로 쓸어보고 만져보고 야단이 났었지. 그러면 여편네는 손수건 갖고 여편네들 손자국을 그때마다 닦느라고 경황이 없었지 아마. 철민이 엄마, 그냥 있어선 안돼, 한턱 내야지 그냥 갈 수 없어 하고 어떤 여자가 기발하게 지껄었었지. 여편네는 굵다시 당하고 말았지 아마. 여섯이나 되는 이웃 여편네들에게 자개농 들여놓은 턱을 내느라고 진땀깨나 흘렸지. 그날밤 여편네는 자개농을 닦고 또 닦느라고 밤잠까지 설쳤지 않았던가. 약냄새 때문에 재채기가 날 지경이었는데도 여편네는 신들린 사람처럼 닦고 닦아냈었지. 그 자개농 금어치가 자그마치 일백만원인데 그걸 그냥 넘긴다는 건 아무래도 걸쩍지근 한데. 도끼로 반으로 툭 자르자니 못쓰는 물건이 될 터이고 그냥 넘겨버리자니 속쓰린 일이 아닌가. 게다가 여편네가 히어멀건 사내놈과 재혼이라도 한다면 그 놈이 그 자개농 옷장에다 제 옷을 퍽 걸게될 것이 아닌가. 안될일이지. 그냥 팡 부셔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참을 수가 없지. 아니 내 또 왜이러지. 쉽게 생각하자고 심기 다잡아 먹고나서 또 무슨 웅졸한 생각만 하고 있다는 젠장. 잊어버려야지. 그간 자개농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준재별집 딸에게 새장가라도 들게된다면 그간 백만원짜리 자개농이 대순가. 학이 다섯마리나 그려진 천만원짜리 자개농을 들여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데데한 생각에 골똘해 있다니 안될 말이야. 그런데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포뎬고

차뎬고 나면 내게 남는 것이라곤 현구두 한짝하고 옷 세벌 뿐이 아닌가. 이진 너무 서러운 일이 아닌가. 아무리 양보도 좋고 너름새도 있고, 도량도 있다지만 내가 순 거지 신세가 되어서 이 집을 나간다는 건 아무래도 좀 심하지 않을까. 위자료 받아가면서 이혼 당해주는 사내들도 질편하다는데 내 꼴은 이거 너무 양보만 하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거 아닌가.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쪼다같은 내가 준재별집 딸을 만나서 내노라하고 결혼하게 된다는 생각부터가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거 아닐까. 맞았어, 그건 그렇군. 나같이 박복하고 몰골 또한 시원찮은 판국에 실성한 재별집 딸이 있으면 몰라도 공연한 생각이.

아나 그게 아냐. 세상사는 새옹지마(塞翁之馬)라했다. 한때의 화가 훗날의 복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이(利)가 뒷날의 해(害)가 된다는 식으로 세상사는 돌고도는 게야. 재별 딸이면 대순가. 저도 하루세끼 나도 하루 세끼, 저도 눈코있으면 나 또한 모자랄것이 없거늘 재별의 딸을 벼랑위에 있어서 따지 못할 한 송이 꽃으로 알건 없다가. 부대끼다 보면 지금의 여편네보다 더 앙큼한 여자도 만날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않고 준재별이 아니라 대재별의 딸인들 못만날까. 시골 꽃단지에서 날품팔이로 몇십년을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하루 사이에 대재별의 여



동생이된 사실은 신문에도 난걸 보았지 않던가. 그래 맞아. 세상은 그런거라구. 돌고돌다보면 장땡이를 잡는 수가 부지기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깐 꽤나 마음이 편할걸가지고 내가 왜 이토록 헤메고 있었지 쟤장. 지금은 다만 결심한 바를 결행하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렇구말구. 여편네가 이혼문제를 끌고 나왔을때, 뚜꺼비가 파리잡아 먹듯이 덜컥 받아줘야지. 사내 꼴 하구선 이게 뭐가. 부부싸움할 때마다 이혼하자고 목죄이고 드는건 여편네 편이고 난 그대목에 이르러선 그만 말구멍이 막혀버리게 되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초화란 말인가. 내가 도대체 뭐가 뭐가 구린 구석이 있어서 항상 여편네에게 닥달만 당하는가. 내가 남들처럼 외입질을 하고 다닌 것인가, 노름판에서 거금을 몽땅 날리고 다니는 노름꾼인가. 아니면 일년 가야 피전 한푼 벌지 못하는 날 건달인가. 그래도 보너스까지 합쳐서 한달 평균 50만원씩은 집에다 꼬박꼬박 갖다바치고 용돈은 타다쓰는, 그야말로 국가가 보충해줘도 좋을 케이에스 레테르가 붙은 샐러리맨이 아닌가. 샐러리·맨, 그건 쉬운건가. 삼저시대니 삼고시대니 떠들어대고들 있지만 요사이 일 자리 구하기가 옛날보다 쉽던가. 감원조치 안당하고 지금까지 쇠힘줄같이 버틴 저력을 몰라보고 이 여편네가 질뻐하면 이혼타령이었으니 이걸 그냥두고 본다면 나아말로 바보가 아닌가. 이런 바보가 한달에

평균 50만원씩을 꼬박꼬박 집으로 날라주고 있다면, 정말 소가 웃을 노릇이다. 한달 20만원도 못갓다주는 남편들도 제 계집을 겨먹은 개 꾸짖듯 꾸짖고 소처럼 부러먹는 판국인데 내 꼴이 이게 뭐가. 이 세상알고보니 회의적이다 정말. 그냥 각 죽어버릴까 보다. 그래선 안되지. 죽는 힘 들여서 살아보면 희망이 있다고 교수학자들이 한결같이 지껄이는 말인데, 내가 죽긴 왜 죽어. 살아서 저 도도한 여편네의 원수를 갚아야지. 나보란듯이 살아야 내가 고소하고 여편네가 쓰리지. 여편네가 쓰리고 내가 고소해야 오늘의 결심한 바가 영광으로 이어질것 아닌가.

그렇다면 결심한 바를 당장 결행하지않고 나는 지금 뭘하고 있다는 것인가. 도대체가 일어나고 봐야지. 일어나야 움직일 것이고 움직여야 이혼서류에도 장 광광 찍고 행하니 나갈 것 아닌가. 그래 당장 오늘 밤차로 시골로 내려가자. 내려가서 창피야 당하든말든 서류를 만들자. 뭘 꾸물대고 있어. 그래 가자. 서울역가서 기차표사고, 소주 한병사고, 차창 밖으로 흐르는 밤경치를 바라보면서 9년 동안의 이 쓰디쓴 결혼생활을 회고하면서 깡소주를 마시자. 인생을 생각하면서, 세상 알고보면 회의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시고 또 마시자. 그래도 여편네는 과거에 같이 살던 정의는 있어서 양갈진 목소리로 말하겠지. 여보 작작 마세요, 흥, 어림없는 수작이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걸 마시고 쓰러져 죽든 기차밖으로 날아가버리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속 시원하게 퍼부어야 하겠어. 여편네는 머슴해질 것이고 객차안 안에 있던 승객들은 우리를 쳐다보게 되겠지. 그땐 난 일어설꺼야. 용기있게 벌떡 일어선다구. 그래서 멀뚱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고있는 그들에게 난 소리 칠꺼야.

난 이혼하러 갑니다. 짜식들 꽤나 놀라겠지. 그러나 박수를 쳐주는 동병상련의 사람도 없지는 않을꺼야. 악수를 청해 오겠지. 난 영웅이 된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였던가. 내 얼굴위로 뭔가 몽클하는 게 있었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떴지. 혼자서 까먹은 쇠주에 좀 취했던 모양이지. 여편네가 내 떡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다구. 그녀가 묻더군. 당신 꿈꿔요? 얼떨결에 대답했지. 그래에 꿈꿨어. 뭐 꿈을 꿬요? 별종이네 낮잠에도 꿈꾸나? 깨몽해요, 어서. 내가 대답했지. 응 깨몽할꺼야. 그래도 이게 보통선물이야. 깨꿈이라도 꿬다는게. ■

